



즉시 배포용: 2022년 12월 2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성소수자 지역사회의 의료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패키지에 서명

법안(A.9604/S.8937)에 따라 만18세 이하의 노숙 청소년은 동의하는 경우 의료, 치과, 건강, 병원 등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법안(A.1880A/S.2534A)에 따라, 자택 간병인 및 간호 보조사는 다양한 성적 정체성 및 젠더 정체성을 가진 환자를 대하는 훈련을 의무적 시행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의 의료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가출 청소년 및 노숙 청소년이 성소수자(LGBTQ+)와 함께 협력하여 간호 및 자택 진료 보조를 받고 스스로 의료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법안은 LGBTQ+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진료 환경에 대한 보호를 확대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GBTQ+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은 공정하고 접근 가능한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LGBTQ+ 커뮤니티, 특히 취약한 청소년을 위해 실질적인 의료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더욱 포용적인 진료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LGBTQ+ 평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법안(A.9604/S.8937)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은 의료, 치과, 진료, 병원 돌봄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LGBTQ+ 청소년은 가출 및 노숙 청소년 인구의 많은 부분인, 40% 이상을 차지하며, 트랜스젠더, 젠더 논컨포밍 청소년이 특히 많습니다. 현행법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결혼하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노숙자이거나 가출했을 경우, 이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가출 또는 노숙 청소년은 승인을 받은 가출 및 노숙 청소년 위기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임시 독립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료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Jabari Brisport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한 현실은 많은 청소년, 특히 LGBTQ+ 청소년이 사랑하는 가족과 안전한 가정을 가지지 못하며, 이로 인해 아이들이

기본적인 진료를 받지 못해 큰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남성이자, 아동가족위원회(Children & Families Committee)의 위원장으로서 저는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의 진료를 보장하는 법안이 제정되어 매우 기쁩니다."

Richard Gottfried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우 상식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나 노숙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에게 부모의 동의는 진료의 걸림돌입니다. 부모를 만나기 어려울 수 있고, 가족의 상황 때문에 동의를 얻는 것이 위험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진료가 지연되어 청소년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제안을 기반으로 한 이번 법안은 의료적 결정을 내릴 충분한 정신적 역량이 있다면 더욱 많은 청소년이 스스로 진료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A.1880A/S.2534A)에 따라, 자택 간병인 또는 간호 조무사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대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을 LGBTQ+로 이해하는 많은 환자가 자신을 인정받는 환경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일부는 정체성 때문에 진료를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법안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가진 환자의 요구에 대응하며, 이를 통해 환자들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Gustavo Rivera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간병인 및 간호 조무사들이 환자의 다양한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고려해 최고의 간호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가 평등과 존중이라는 가치를 의료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Jeffrey Dinowitz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연령, 그리고 진료 단계에서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택 간병인 및 간호 조무사가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상식적인 솔루션으로 우리의 훈련 프로그램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